



남장현 기자의 피버피치



K리그 이적을 추진 중인 백승호(다름슈타트)가 과거 수원 삼성과 맺은 지원 합의서를 놓고 적잖은 파열음을 보이고 있다. 합의서 자체를 인정하지 않고 있는 백승호측의 태도에 수원은 크게 분개하고 있다. 사진출처 | 다름슈타트 트위터

‘수원과 평행선’ 사면초가 백승호 직접 입 열고 이해 구해야 할 때

K리그(1부) 수원 삼성과 백승호(24·다름슈타트)의 갈등이 점차 심화되는 모습이다. 수원 산하 유스팀인 매달중 시절, FC바르셀로나(스페인) 유학을 떠났던 백승호는 K리그 무대를 노크하고 있다. 전북 현대가 유력한 행선지로 떠올랐었다. 주요 독일 매체들도 “백승호의 전북 이적이 유력하다”고 보도했었다. 문제가 있었다. 과거의 합의다. 백승호는 2009년 매달중 입적이 결정됐는데, 2010년 3월 바르셀로나 유학 기회가 생겼다. 당시 양측은 매달중 진학까지 약속하며 3년간 매년 1억 원씩 지원하는 합의서를 썼고 실제 이행됐다.

이후 백승호와 바르셀로나의 계약이 연장되고 매달중 진학이 어려워지자, 2013년 초 2차 합의서를 작성했다. 여기에 ‘K리그 복귀 시 수원에 입단하며 위반 시 지원비 반환과 손해배상을 청구한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전북과 협상은 중지됐다. 확인되지 않았던 사실이 파아팠으니 계속 논의하기 어려웠다. 만 나면 항상 치열하게 싸우지만, 전북은 리그 동업자인 수원과 관계도 중요했다.

그 뒤 수원과 선수측이 지난달 25일 만났다. 협의는 없었다. 수원은 “백승호측이 사과는 했으나 합의서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다”며 분개했다. 합의서를 인정받지 못하면 수원은 입단 추진은커녕 지원금 회수도 어렵다. 수원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한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선수측의 답변이 없었다고 한다. 그 대신 ‘3월 5일까지 구단이 정식 영입 제안을 하라’고 요구했고, 이에 수원이 회신하지 않자 백승호측은 “타 구단 입단을 추진하겠다”고 8일 통보했다. 이와 동시에 다름슈타트도 같은 내용의 공문을 전했다.

서로의 입장은 평행선이다. 상징적으로 백승호의 수원 입단은 불가능하다. 재정적 여유가 없는 수원이 다름슈타트가 요구할 이적료나 연봉을 감당하기 어려운 것도 사실이다. 다만 여론 자체가 선수에게 불리하다. 어렵사리 입단해도 가시밭길이다.

백승호측은 여전히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전면적인 여론몰이에 나선 수원에 냉정하게 대응하기 위해서일 수 있으나, 지금은 여유가 없는 듯하다. 하지만 입을 다물고 있으면 논란은 더욱 커진다. K리그 진출 과정이 요란한 것에 대한 미안함, 합의서를 부정하는 최소한의 배경이라도 직접 밝혀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환영받지 못한 채 그라운드를 누벼야 하는 상황은 누구에게나 고역이다. 어린 선수에게는 더 그렇다. 백승호는 거친 유럽에서 치열하게 생존한 차세대 스타다. K리그 진입은 도쿄올림픽 출전과 꾸준한 성장을 위한 쉽지 않은 선택일 것이다.

큰 사랑과 축복을 받으며 뛰어도 모자랄 판에 비난과 비판부터 받고 있다. 스스로 자초한 측면이 크다. 이제 백승호도 적극적으로 상황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하는 자세를 취해야 한다. 또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공개적으로 풀어야 한다. yoshike3@donga.com

호날두 이어 메시의 바르셀로나마저 UCL 8강 탈락

16년만에 동반 탈락... ‘메날두 시대’ 저물다

(UCL 8강)

(메시+호날두)

메시 PK실축... 팀 역전분위기 찬물 호날두 역시 2차전 실점 빌미 제공

최연소 UCL 25골-최소경기 20골 음바페-홀란드, 새 양대산맥 부상

영원할 것 같던 ‘메날두(메시+호날두)’ 시대가 저물고 있다. 지난 10년여 동안 세계축구계를 쥐락펴락했던 리오넬 메시(34·FC바르셀로나)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6·유벤투스)의 위력이 눈에 띄게 줄고 있다. 여전히 정상급 기량이긴 하지만, 예전의 화려함은 많이 퇴색됐다. ‘축구의 신’으로 불리던 이들도 세월의 무게를 힘겨워하는 모습이다. 2020~2021시즌 유럽축구연맹(Uefa) 챔피언스리그(UCL) 16강에서 나란히 탈락해 일찌감치 무대 뒤로 사라졌다.

바르셀로나(스페인)는 11일(한국시간) 파르크 드 프랑스에서 열린 파리생제르맹(PSG·프랑스)과 UCL 16강 2차전 원정경기에서 1-1로 비겼다. 홈 1차전에서 1-4 대패를 당한 바르셀로나는 메시를 앞세워 기적 같은 역전극을 노렸지만 결국 물거품이 됐다. 바르셀로나의 UCL 8강 진출 실패는 2006~2007시즌 이후 처음이다.

전날에는 호날두가 먼저 탈락했다. 유벤투스(이탈리아)는 FC포르투(포르투갈)와 16강 2차전 홈경기에서 3-2로 이겼지만 1·2차전 합계 스코어에서 4-4로 비긴 가운데 원정 다득점 원칙에서 밀려 8강행이 좌절됐다.

메시와 호날두가 동시에 UCL 8강에 오르지 못한 것은 2004~2005시즌 이후 16년만이다. 그동안 둘 중 한 명은 8강 이후까지 살아남아 정상상을 향해 질주했지만, 이번에는 한꺼번에 짐을 썼다.



이들은 탈락하는 과정에서 에이스의 자존심을 구겼다. 2차전에서 메시는 1골을 넣긴 했지만, 1-1로 맞선 전반 추가시간 페널티킥(PK)을 실축해 역전을 꿈꾸던 팀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었다. 호날두는 긴장감이 흐르던 2차전 연장 후반 상대의 프리킥 때 수비벽을 서다가 엉거주춤한 자세로 몸을 피해 실점의 빌미를 제공했다.

‘메날두’ 대신 킬리안 음바페(23·PSG)와 엘링 홀란드(21·도르트문트)가 세대교체를 주도하며 양대산맥으로 등장했다. 음바페는 공교롭게도 메시가 PK를 실패했던 바로 그 경기에서 PK를 성공시켰다. 1차전에서 3골, 2차전에서 1골을 넣어 메시에 판정승을 거뒀다. 또 22세 80일의 음바페는 역대 최연소 UCL 25골을 기록했다. 이는 종전 최연소인 메시의 22세 286일보다 200일 이상 앞선 기록이다.

홀란드도 자신의 가치를 증명했다. 그는 세비야(스페인)와 16강 1차전에서 1골, 2차전에서 2골을 넣으며 펄펄 날았다. 이번 시즌 UCL 6경기에서 10골을 넣어 득점랭킹 선두다. 또 예전 최소경기(14경기) 20골도 작성했다.

한편 황희찬의 라이프치히(독일)는 이날 리버풀(잉글랜드)에 0-2로 패했다. 라이프치히는 1차전 0-2를 포함해 합계 스코어 0-4 완패로 8강행이 무산됐다. 황희찬은 이날 후반 15분 교체 투입됐으나 공격 포인트는 없었다.

최현길 기자 choiHG2@donga.com

세상에 영원한 것은 없다. 계속될 것만 같던 리오넬 메시(왼쪽)와 크리스티아누 호날두의 시대도 서서히 저물어간다. 메시와 호날두는 바르셀로나에 밀려 2006~2007시즌 이후 처음 유럽 챔피언스리그 8강 진출에 실패했고, 호날두의 유벤투스는 FC포르투의 도전에 꺾이 좌절했다. 파리(프랑스)·토리노(이탈리아) | AP뉴시스

격리 끝나자마자 K리그 7R...한일전 대표팀 차출 난항 예고

(4월 1일)

(4월 2일)

구단들 전력 손실...리그조정 불가피 ACL 조별리그 6월 연기 그나마 다행



10년만의 한일 친선 A매치가 25일 오후 8시 30분 서울에서 열릴 예정이다. 태극전사 차출 고민이 새 화두로 등장했다. 코호트 형태의 일주일 격리로 방역당국과 협의했으나 골장 이어질 K리그 스케줄의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2011년 삿포로에서 열린 한일전. 사진제공 | 대한축구협회

10년 만에 한일 친선 A매치가 돌아왔다. 대한축구협회는 파울루 벤투 감독(포르투갈)이 이끄는 축구국가대표팀이 25일 요코하마에서 일본과 평가전을 치른다고 10일 발표했다. 국제대회 경기가 아닌 순수한 평가전 형태의 한일전은 2011년 8월 삿포로에서 열린 경기(0-3 한국 패) 이후 처음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을 뚫고 펼쳐질 A매치라 더 특별하다.

그러나 고민은 계속된다. 태극전사 차출이다. 국제축구연맹(FIFA)은 코로나19 시국에 한해 ‘5일 이상 자가격리가 필요한 경우, 구단은 A매치 차출을 거부할 수 있다’

는 임시규정을 만들어놓은 상태다. 협회가 정부와 방역당국을 적극 설득해 2주간의 자가격리를 일주일로 줄이고, 형

태도 코호트 격리로 조정했으나 손실이 불가피하다. 대표팀은 20~21일 K리그 경기를 마친 뒤 22일 인천국제공항에서 소집돼 출국했다가 26일 귀국한다. 그 후 경기도 파주 국가대표트레이닝센터(NFC)로 이동해 시작될 격리는 다음달 1일 끝난다.

여기서 문제가 발생한다. K리그 일정이다. 4월 2일 포항 스틸러스-대구FC전을 시작으로 K리그(1부) 7라운드도 재개된다. 벤투 감독이 선호하는 선수들이 많고, A대표팀 예비엔트리에 10명 이상 속한 것으로 알려진 울산은 4월 3일 성남FC와 원정경기가 잡혀있다. 정상전력을 구축할 수 없다.

상황에 따른 일부 조정이 불가피해 보인다. K리그 관계자들은 “협회의 의지를 확인했으니 한국프로축구연맹과 구단들의 긴밀한 논의와 입장 정리가 필요하다”는

원론적 입장을 드러내면서도 난처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4월 말 예정이던 2021 아시아축구연맹(AFC) 챔피언스리그 동아시아권역 조별리그가 6월로 연기돼 탄력적인 스케줄 조정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해외파 소집도 녹록치 않다. 대표팀 소집 규정에 따라 협회는 이미 이달 초 손흥민(토트넘), 황희찬(보르도), 황희찬(라이프치히) 등 주요 유럽파의 소속팀에 협조를 요청했으나 격리 문제가 큰 걸림돌이다. 영국과 독일은 10일, 프랑스는 일주일을 요구한다. 손준호(산둥 루닝), 김민재(베이징 궈안), 김신욱(상하이 선화) 등이 뛰는 중국은 14일의 시설격리와 7일의 자가격리를 실행하고 있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내일 시즌 첫 동해안 дер비...창 vs 창

(울산 vs 포항)

울산 3경기 무려 9골 득점력 우세 포항 김기동 감독 “울산 꼭 잡는다”

울산이 6승4패로 앞섰다.

울산 현대와 포항 스틸러스가 올 시즌 첫 ‘동해안 дер비’에 나선다.

울산과 포항은 13일 포항스틸야드에서 ‘하나원큐 K리그1 2021’ 4라운드 맞대결을 펼친다. 동해안 дер비로 불리는 두 팀의 시즌 첫 맞대결이다. 역대 168번째 맞대결이다. 통산전적에선 포항이 62승50무55패로 우세하지만, 최근 10경기만 놓고 보면

최근 10경기 전적에서 드러나듯 무승부가 없다. 화끈한 공격축구의 총돌이 될 것 이란 예상이 주를 이루고 있다. 개막 3연승 중인 울산은 3경기에서 무려 9골을 터뜨렸다. 압도적 득점력이다. 포항(2승1패·승점 6)은 9일 3라운드 원정경기에서 제주 유나이티드에 0-1로 발목을 잡히긴 했지만, 앞선 2경기에서 5골을 뽑았다.

시즌 첫 동해안 дер비를 앞두고 울산 홍명보 감독(52)과 원주재(24), 포항 김기동 감독(50)과 신진호(33)는 11일 온라인 비



포항 김기동 감독 울산 홍명보 감독

대면 미디어데이에 참가해 각오를 밝혔다. 가장 관심을 받는 인물은 홍 감독이었다. 그는 선수 시절이던 1992년 포항에서 프로로 데뷔해 6년간 간판선수로 활약했다. 이후 일본 J리그로 진출했다가 2002한일월드컵을 앞두고 포항으로 돌아와 1시즌을

더 뛰고 은퇴했다. 울산 사령탑으로 K리그에 복귀한 홍 감독은 동해안 дер비를 통해 친정을 찾게 됐다.

홍 감독은 “포항은 내가 K리그에서 선수생활을 한 유일한 팀이다. 당시 포항 팬들에게 받은 사랑을 아직도 기억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엔 울산 감독으로 포항을 가게 됐다. 추억은 잠시 접어두고 좋은 경기를 하도록 하겠다”고 다짐했다.

김 감독은 “지난 경기(제주전)에 패하면서 주춤한 상태다. 팬들이 다른 팀한테는 저도 울산만은 잡아주면 좋겠다고 한다. 나도, 선수들도 이를 인지하고 있다. 홈에서 펼쳐지는 경기인 만큼 잘 준비하겠다”며 필승의지를 다졌다.

정지욱 기자 stop@donga.com